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2회 충현복음심포지움 성료

전국에서 모인 9백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26일 1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충현복음심포지움이, 성경과 헌법에 나타난 교회(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고찰하고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은혜 중에 막을 내렸다.

1부 예배에서 김찬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심포지움이 사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 교회 협동목사인 윤영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심포지움에서 제1강 발제자 김영한 박사는 "한국 기독교는 이제 개인의 영적 구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가치관 형성과 도덕성의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강에서 황우여 박사는 "내적 종교의 자유는 물론 외적으로 표현되는 종교 활동의 자유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지만 외적 종교의 자유는 국가



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공공질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제3의 발제 강의를 맡은 이종운 위임목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교회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영역자주권의 침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차원에서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선교회

3월 29일에 월례회



우리 교회 교수선교회는 지난 3월 29일 저녁 7시 소석관 104호에서 월례회로 모였다.

교수선교회는 먼저 윤영탁 목사를 모시고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윤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봉사하는 선교 모임이 되자"고 했다. 이어 2부에서는 교수선교회의 발전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회원들은 학원 선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전교를 나누었다.

제4회 교구찬양대회 개최

4월 7일에

요즘 한창 우리 교회의 14개 교구들은 제4회 교구찬양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저녁 늦은 시각에도 정진으로 나와 찬양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찬미하며, 성도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스데반회 특강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 본당 4층 제2다락방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용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다.

이날 박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 강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체계로써 세상을 향해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예장 개혁측 광주시찰 목사 등 150여 명 탐방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광주 시찰예 소속된 50여 개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150여 명이 지난 3월 27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들 방문단은 영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과 교회성장연구회, 성경연구회, 교회학교, 전도회 등 각 부서의 활동들을 소개받았다.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12

권사님, 감사합니다.

동구라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저는 심한 여독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피곤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적 약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밤에는 복소리가 나오지 않아 크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보내셨다는 꽃탕을 이튿날 모르고 내용도 모른 채 한 컵 마셨답니다. 사실 마실 때는 별로 큰 느낌이 없었지만 하도 맛이 특이해서 약을 해서 보내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약이 아니라 사랑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받은 나는 그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권사님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서인지 그날 이후 건강은 다시 회복이 되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을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충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목사

새가정부 경제생활 강연



우리 교회 새가정부는 지난 3월 25일 11시에 소석관 201호에서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원장 전성자 집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열었다.

이날 전 집사는 "기독교인 가정의 경제생활"을 주제로 과소비에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례를 들어 강의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알뜰살림의 지혜를 발휘하여 사회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부 찬송가대회 은혜 중에 마쳐

고등부는 지난 3월 25일(주일)에 찬송가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의 젊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지정곡은 234, 257, 389장 중에서 택일하였고 자유곡은 찬송가나 복음서가 중에서도 선택하였는데 두 편이 한 팀이 되어 총 26개 팀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였다. 대부분의 팀들은 기타, 피아노 등의 악기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 지정곡 257장, 자유곡 '주님의 사랑'을 부른 2학년 9, 11반이 대상을 차지했다.

제6회

군중 장교후보생 수련회 개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는 군복음화 후원회와 함께 오는 4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군중 장교로 입원받아 입대하는 군중 장교 후보생을 초청하여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 수련회에서는 분원철 목사가 "훈련과정 소개", 김선도 목사가 "군목회 사역의 실제론", 이종윤 목사가 "현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 이윤환 목사가 "군중업무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군 파송 9개 교단 약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련회는 군중 장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새롭게 하며, 군 선교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상호 친교를 통해 인화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회안내	
주일(09:00)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4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 11시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일(09:00)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3부, 청년1-4부, 소년부, 영아부, 직장선도부, 새가족부, 새가족부, 사별부, 예비대부, 약아부, 삼촌경로대학
방송선교	기독교방송 (83.7MHz) 주일 오후 7시
송담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회개성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일반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5-5122)



성경 강해

이 종 운 목사

어리석은 질문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요 8:21-30)

1. 각 구절이 주는 의미

첫째,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요 8:21)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은총이요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 사귄 수 있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는 안타까운 이유는 빛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국가와 민족을 괴롭히고 가정과 교회를 혼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믿음과 생명을 같이 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이란 장식품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많은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의

수남을 잘 믿는 나라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므로 영육이 아울러 강해집니다.

2. 유대인들의 질문

첫째,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요 8:19)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요셉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른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속하여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심판의 자리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이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가 자결하려는가(요 8:22)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40여 년 동안 신봉해 오던 공산주의를 버리는 것은 이제는 잘 살아 보자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은 경우에 따라 버릴 수도 있으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가게 되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하다가 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누구냐(요 8:25)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 얻어야

빛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지 빛이 사라진 다음에 빛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은 빛이 없으면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빛을 무시하면 인간은 무지한 데 빠져버리는 안타까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저가 자결하려는가”라는 오해를 하였습니다(요 8:21, 22).

사람들이 무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할 기회가 많지 못함을 경고하시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속에서 멸망하게 되므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낳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죄란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죄의 뿌리는 무지라고 정의합니다. 무지한 인생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관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므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가 무너지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지금 살아 있느냐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요 8:28)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부자관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장벽을 없애는 능력이 되어 인간들이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요 8:29)

예수님께서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촉되거나 뒤로 물러 나지를 않으시고 더욱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예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였고, 심지어는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로부터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이 죄 가운데 끌려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는 죄악이 꼬리를 물고 덩벼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인간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때에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며 한탄하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미 계시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결국 세상 끝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지 말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개혁신학에서 본 종교의 특성

특집

제2회 중현복음심포지움
제1강 발제강의 요약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본
종교의 특성과 역할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에 기원
종교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속에 자기의
신성, 즉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심어 주셨다는 유신론적 존재론의 명제에
서 설명되어 진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교의 유
일신 사상이나 철학적 단일신 사상과 다
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
위를 가지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속
여러 종교들은 종교적 수련과 신격화를
통한 인간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와는 달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
도만이 인간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이라는 데 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대속자요 그분 외에 다른 구
원자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셋째, 역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기독교적인 동양종교들은 역사에 대
하여 부정적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기독
교는 역사에 관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
인 태도를 지닌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
관하시며 역사의 진행과정을 섭리하신다
고 하여 역사를 구속사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 뿐 아니
라, 사회와 역사의 부조리한 구조 변혁에
관심을 갖는다.

넷째, 사회에 대한 도덕성과 정신성의
원천

인간 사회의 문화는 종교를 기초로 하
여 발전해 왔다. 그래서 종교신학자 티리
히는 “종교란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
교의 형식”이라고 했다.

동양종교는 높은 도덕성과 정신성, 윤
리성을 심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종교에는 절대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 결여되어 있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추구
되는 이상적 목표가 되어 버린다. 그
리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추구가 개인의
덕목으로 끝나 버리고 사회적 변혁으로까
지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개인적인 성취에 머
물지 않고, 문화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실현으로 나아간다.

다섯째, 종말에 대한 비전
비기독교적 종교에는 종말론이 없다. 그
러나 기독교는 역사를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으로 보며, 이 역사의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역사 완성 및 역
사 구속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주관종교와 객관종교의 지양
종교사를 살펴보면 주관종교와 객관종

2. 개혁신학에서 본 종교의 역할

첫째, 신과의 바른 관계 정립

참종교인 기독교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
함으로써 탕자와 같은 현대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나 자신에 대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
연과의 관계, 문화와의 관계가 기초가 된
다.

둘째, 인간 개인의 정체성 발견

기독교는 사회에 도덕성의 지표를 제시해야

교의 대립을 발견하게 된다. “신성한 실
재성”을 위협스러운 것으로 경계하는 주
관종교와 종교 의식을 중요시하는 객관종
교의 대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사건 안에서 극복된다. 그
리스도 계시사건은 신비적 체험이 아니므
로 주관종교의 유형에 들지 않고, 의례적
행위 또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므로 객관
종교의 유형에도 들지 않는다. 그리스도
의 계시는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종교의 완성 또는 종교의 지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종교이다.

참종교는 인간의 위대성과 도덕성을 찬
양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고발함으로써, 현대인으로 하여
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한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기의 고귀성과 존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예언적 사명
참종교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함으로써 역사와 사회에 대한
예언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넷째, 문화에 대한 변혁과 새문화 창조
참종교는 문화에 대하여 초월적으로 접근
하여 문화의 병든 부분과 퇴폐한 부분을
변혁시킨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
비판을 수행하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 요
소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주권이 지배하
는 문화를 창조한다.

다섯째, 윤리성과 도덕성의 보존 및 고
양

참종교는 사회의 등대가 되고 정신적,
윤리적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한 사회가
가치와 이념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방황
할 때 참종교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선교적 차원에서
양적인 교회의 팽창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질을 높이고 교양
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여섯째, 초월성의 차원과 종말의 비전
제시

참종교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원한 삶, 그리고 역사의 통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한
다. 또한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벌이 있으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종결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
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수립될 것을
증언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까지 종교의 특성
과 역할 가운데서 수직적인 차원, 즉 삼
위일체 하나님의 자기계시,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한 인간의 구속,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인의 영적 구원, 종말에 대한 비
전과 역사를 초월하는 궁극적 차원을 많
이 강조하여 왔다. 이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는 역사의 구
조적 화해, 사회의 도덕성의 원천, 사회
에 대한 예언적 역할, 문화 변혁, 윤리성
과 도덕성의 보존과 교양과 같은 수평적
차원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다. 한국 기
독교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가치
관 형성에 기여해야 하고 도덕성의 지표
와 문화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사회
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



삶을 통한
전도



오 태 희 장로

요즘 들어 지하철 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나 길거리에서 성경 책을 손에 들고 주위 사
람들이 듣든지 안듣든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눈살
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하게 지나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행동에 대하여 같은 기독교
인들의 시각도 가지각색이다. 전도의 방법을 깊게 연
구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상식도
없이 무조건 떠돌아 대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듣든지 듣지 않
든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으면
저렇게 창피함도 무릎쓰고 전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전도하라고 명
령하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은 고정화되고 형식화되어 어떤 틀에
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풍성
하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 말씀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을 사
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
활인 것이다. 실권 부흥회에서 은혜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택시를 먼저 잡겠다고 성도들끼리
연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
런 것들을 기초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야
한다. 남에게 덕이 되면서 도움을 주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
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도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부들은 콩나물 사러 구멍가
게에 가서 아름다운 행동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은 자

신들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직장인들
은 직장에서 뒷사람, 아랫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자신
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긴 다르구나. 나도 한 번 예수 믿
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
말 바람직한 전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삶을 아름
답게 장식하여야겠다.

금년도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가 98개 지회로 확장
되어 각 지회마다 회원간의 친교도 잘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또 농어
촌 교회, 낙도 교회, 장애자 교회, 군대, 병원 등
130군데가 넘는 곳에 엄청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
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하나하나가 내 구역에서,
내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나
를 통하여 구역이 배가되고 교구가 활성화되고 나아
가서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다음호 세기등은 손동운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임마누엘의 하나님



권영진 성도

1987년 11월 20일. 이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대한의 남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야만 하는 입대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아릇한 긴장감과 공허함이 온 몸을 사로잡았던 그때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진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허약한 자아를 드러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나는 머리 속에 “주님, 저는 미천합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3년의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의 군생활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4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본격적인 군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대는 대구에 있는 군수부대로서 저는 그곳에서 주간에는 사무를 보고 야간에는 정상적인 내무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군대생활과는 다른 매우 좋은 조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벽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다 보니 군인 본연의 잘일은 오후에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각자의 계급에 맞추어 내무반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가야 했는데 때마침 내무반에 작업이 생겨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 잡초제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번민과 갈등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몇몇 졸병들은 감히 고참들에게 열외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교회를 가야합니다만 다른 병사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므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다른 병사들을 저버리고 간다면 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크리스찬 사병들이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병으로부터 일직사령전달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교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장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군중병과 신우회 총무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열기로 온 나라 안이 들끓고 있을 때 그 열풍이 군대에도 불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사로부터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서 파견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0°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혀를 차던 저에게 이 명령은 청량음료와 같이 나의 온 몸을 사로잡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에게 주님은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 봉사하라는 주님의 섭리였나 봅니다.

88년 8월 파견신고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림픽 붐이 서울 하늘을 뒤덮었고 나 자신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풍족한 물질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타락의 길로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저런 전입 행정 사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라 뜻 있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크리스찬 전우들에게 마태복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끝낸 후 함께 예배드린 전우들과 기도하며 뜻을 합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첫날의 이러한 체험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고 올림피의 성공이 선교 사역의 한 부분임을 여실히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틈틈히 성도들의 기도와헌금으로 구입한 성경을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50여 개의 언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각 나라별로 보급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생활 중 이때만큼 기쁘고 보람찼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저는 성경 보급에 열을 올렸고 특히 중국 기자들에게는 기독교방송의 전파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선교비디오 테이프, 복음송 테이프 등 방대한 양의 전도 물품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도 물품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교포 및 외국 크리스찬들의 헌금과 기도로 구입한 것만큼 매우 소중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뿌리는 자는 인간이지만,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앞으로 선교 사업에 헌신하려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직회 선교부위원

◆ 불교권

담 당 이영세 간 사 이호연
실행위원 최명환, 박영엽, 명정옥,
김인권, 김인근,
기도위원 이옥녀, 백영희, 김진만,
방계운, 전인화, 안윤진, 김순실, 강순희,
박미련, 이종섭, 임정우, 장영자, 정옥남,
홍명순, 김경희, 권명옥

◆ 가톨릭권

담 당 남선우 간 사 김상규
실행위원 김영삼, 손명순, 장영옥,
강도화, 나희주, 임무천
기도위원 안춘진, 정경자, 남수연,
여옥기, 김중복, 이신열, 이승자, 이병영,
이영희, 이영자, 이영자, 박종영, 김창국,
김유찬, 김구진

◆ 회교·힌두교권

담 당 김광신 간 사 박문태
실행위원 민순애, 이영일, 김춘권,
김상순, 박홍규
기도위원 이현실, 김석윤, 우순성,
이명자, 전성자, 정봉조, 채영애, 김분녀,
남정애, 김시주, 박두영, 양충훈, 염은식,
최인영, 한준기, 김정자

◆ 공산권

담 당 조인제 간 사 이부성
실행위원 김천재, 박순옥, 전순자,
곽다운, 김용숙
기도위원 원도화, 문명애, 박명엽,
유복달, 이의복, 전춘자, 신명희, 송명희,
이인선, 한광숙, 황나호 집회위원장, 이영옥,
이영옥, 김형곤, 박정순

◆ 세속권

담 당 박용삼 간 사 박종규
실행위원 윤인현, 이혜숙, 이기성,
전홍일, 이명자
기도위원 노영숙, 박윤식, 변순복,
최난수, 한경숙, 한영숙, 김용섭, 박순옥,
김은영, 나정애, 박효지, 안태숙, 유효선,
전홍열, 한광조, 김중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다락방

제 14 과 구원의 서정

성경 : 고전 12 : 13; 엡 1 : 13, 14

요절 : **아는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 14)**

찬송 : 410, 434

제 29 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됨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30 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 명

구원의 서정은 다른 말로 구원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다양한 혜택들을 성령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성경은 부르심(소명), 거듭남(중생), 회개, 신앙, 의롭다 하심(칭의), 양자, 거룩하게 하심(성화), 궁극적인 구원(전인), 영광스럽게 하심(영화)으로써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은 전생애에 걸쳐서 진행된다.

질 문

1. 우리는 어떻게 구속되었습니까(엡 1 : 7; 뱀전 1 : 18, 19)?
2.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엡 1 : 13, 14)?
3.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고전 12 : 27)?